" 절망에서 희망을 만드는 보루요 횃불되라 "

■ 이종윤 원로목사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눈으로 오늘을 판단해서도 안된다. 일제 말엽 일제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밥숟가락, 젓가락, 대문의 문고리까지 다 국가에 바치라는 명령이었다. 낙향 아니면 친일적 행동 그것도 아니면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때에 살던 이 나라 백성들의 그 처절했던 시절을 오늘의 민주화된 세상의 잣대를 갖고 그들을 잴 수는 없다. 모두가 친일파 아니면 패배자 내지는 폐인으로 낙인찍혀야 한다. 어제의 눈으로 내일을 꿈꾸어서도 안된다. 미래의 꿈으로 오늘을 재단해서도 안된다. 어제와 오늘의 진실 그리고 내일의 알찬 꿈이 융화의 용광로에서 녹아야 바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어제, 오늘, 내일을 종합하고 균형있게 보는 보통적 관념, 통시(通時)적 시관(時觀)을 가져야 한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만 보면 세상이 삐뚤게 보인다. 내가 선 이곳 넘어서의 먼 곳도 전체를 두루 섭렵해야 한다. 이 땅의 자(尺)로 바깥 세상을 재어서도 안된다. 바깥의 자(尺)로 이 나라를 그려서도 안된다. 이 땅에서도 바깥세계도 모두 자기 나름의 자리가 있고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 땅, 이웃, 지구촌 공간을 종합 · 균형 있게 아우르는 통합적 관념과 통장(通場)적 장관(場觀)을 가져야 한다. 나와 우리, 우리와 남, 이곳과 저곳, 이것과 저것을 통시적 · 통장적으로 보는 융합의 안목과 균형의 지혜와 중용의 성숙성으로 나와 사회 공동체, 나라와 지구촌의 생명, 안전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비판을 거치지 않는 또는 비판을 허용치 않는 비(非)비판, 무(無)비판의 낙관주의, 현장주의, 직선주의, 일방주의이며, 비비판, 무비판의 비관주의, 부정주의, 반대주의, 냉소주의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비비판, 무비판의 저항주의와 투쟁주의, 비비판, 무비판의 타협주의 그리고 비비판, 무비판의 중간주의를 낳는다. 그 결과는 폭력과 선동의 폭주로 자멸로 가거나 문제 회피와 현상 연장의 무사안일 안주로 자멸케 된다. 극단의 폭력과 극단의 사리(私利)의 온상이 된다. 진실에 대한 외경(경건), 정의에 대한 믿음(정직)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관용없이 오늘 이 나라의 삶의 실체에 접근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래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러고도 선진국인가' '국가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절규를 보수, 진보 모두에게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5.19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로부터의 결별, 과거의 극복과 융해 그리고 미래 창조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승화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절대 명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월호 태풍으로 그치지 않고, 성완종 태풍, 메르스 태풍, 방산 비리 등으로 이어지고 밖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역사 태풍, 중국으로부터 경쟁력 태풍, 20년 실패한 북한 핵 태풍,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변동에 따르는 지정학적 태풍까지 명실공히 perfect storm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1910년 국권상실, 1945-50년 분단과 전쟁, 1948년 건국 이래 최대로 큰 perfect storm에 매몰되어 있다. '왜 세금을 내야 하나' '지금은 혁명을 해야 할 때'라는 질문을 제도권 언론들조차 던지고 있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우리나라 정체성과 정통성에 큰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이 절박한 시대적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 역량은 혁명과 쿠데타라는 폭력적 파열 없이, 전쟁이나 IMF외환위기 같은 외압의 비극 없이 사회 각계가 내부에서 자발적, 자율적, 주체적 개혁에 의한 국가 개조와 perfect storm방어가 무엇으로 가능할까를 질문해야 한다.

이 파국을 보면서 중고등학생 국사교과서 논쟁에 정파 싸움이나 할 때인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창시한 각계 원로들과 기독교 지도층의 노력과 협력이 대한민국을 절망에서 희망에로 만드는 자율적 개혁의 보루가 되고 횃불이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1481호] 2015년 11월 14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2:1-5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Benefits of the Gospel"		Pastor
* Hymn	263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비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옹,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영일, 김덕수(군선교)

제28권 제6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8년 2월11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산 소망과 썩지 않을 유업 "

■ 벧전 1:3-9, 13-21

베드로전서는 1세기 소아시아에서 비난받고 소외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제국 속의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칭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이들이 바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받는 나그네의 삶을 택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불에 단련된 금보다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 헛된 소망, 피할 수 없는 죽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복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그 복은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한 것에는 이러함의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헛될 뿐 만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죽음, 곧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다 함을 의도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삶의 귀결입니다. 이 세대의 최종 목적지이며,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렸다는 의미이며, 죽음이 하나님 생명 통치의 능력에 굴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에 이른 것 같이 우리들도 죽은 뒤에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2. 구원의 현재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무엇인가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두려움입니까? 열등감입니까? 무력감입니까? 자괴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필연적으로 허무함과 자괴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도 않고, 채워진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욕심과 우리들이 세워놓은 우상이며, 이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노예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삶에 살게 하는 사욕과 우상숭배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하시고 분별케 하시므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지금 빠져있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 삶을 선택한 동기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맺는 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사람들은 수치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스러움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세뇌시키고 형성해 놓은 우리의 자화상을 고쳐줍니다.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썩지 않을 유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난 후 고난 가운데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도구입니다. 불이 검을 연단하는 것 보다 더 강하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므로 우리를 더욱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뒤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으신 예수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칭찬과 존귀를 주셨듯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마친 뒤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주십니다. 복음을 상실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서울교회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교회가 지난 27년간 붙잡아온 단어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가치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복음의 능력에 저희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 정성국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Ⅲ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차도훈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50: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37(시 9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맡 은 이
찬 송 Hymn ·····9(5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벧전 2:1-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왕의 제사장들"·····	정성국 목사
* 찬 송 Hymn ·····341(36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 시 16:1-2 ·····	인 도 자
찬 송 ····· 14(30) ·····	다 함 께
기 도	김승록 집사
성 경 ····· 계13:11-18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거짓 선지자와 그 표 받은 자들"···	설 교 자
* 찬 송 ····· 351(389)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남태순 권사
성 경 ····· 엡 4:17-24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새 사람"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부희외2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21)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아브라함 월례회 / 11월(주) 오후2시 101호
2. 선교회 전도회 연합월례회 / 11월(주) 오후3시30분 본당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종욱(진검)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구정연휴로 쉽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4.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금년도 첫 세례식인 2월 세례식이 2월18일(주)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2월11일(주) 문답총정리는 오후1시 602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2월11일(주) 문답은 오후2시 602호에서 있습니다.
    ※ 기타궁금한 사항은 010-2376-3892로 문의바람
15. 정성국 목사 소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B.A.)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47명	248명	349명	1,544명	149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 4일	헌금	50,356,600	
"	특별예배비		700,000
	말씀봉사비		25,041,157
"	찬양운영비		9,626,500
	교회학교운영비		765,500
	경 조 비		260,000
	구 제 비		2,500,000
"	출 판 비		270,000
	통 신 비		394,540
	소모품비		704,190
	차량유지비		436,000
	사무용품비		18,400
"	복리후생비		120,700
	수도광열비		19,979,880
	수선유지비		48,000
	식당운영비		829,700
"	합 계	50,356,600	61,694,567